

자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일본의 노력

민광준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

한 나라의 국어 문제는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며, 그 나라의 교육 및 문화의 발전과도 결부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국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각 방면의 국어 사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부와 각급 학교 및 마스크와 각종 민간 단체 등이 기울이고 있는 일본인들의 자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일본 정부의 국어 정책

2001년 11월 30일에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입법으로 “문화 예술 진흥 기본법안”이 성립되었다. 이 법안은 자민당, 공명당, 보수당, 민주당의 4당 공동 발의로 성립되었는데, 일본의 예술, 문화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내걸고, 관련 법 제도와 재정 지원 등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에도 국가의 책무와 연계한 시책의 추진을 요구하고, 문부과학

대신이 새로 설치된 「문화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문화 예술 진흥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된 「기본 방침」을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제18조(국어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국가는 국어가 문화 예술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국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국어 교육의 충실, 국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식의 보급과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이 법안의 성립과 더불어 일본의 국어 교육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체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국어 교육에서 2001년 11월 30일은 매우 의미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어와 관련된 정책은 1902년에 설치된 「국어 조사 위원회」, 1921년에 설치된 「임시 국어 조사회」를 거쳐, 1934년부터는 「국어심의회」의 심의에 입각하여 시행되어 왔고, 2001년부터는 「국어 심의회」가 폐지되면서 새로 설치된 「문화심의회(국어분과회)」에서 국어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1934년에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종래 주로 표기 문제를 거론하여 일반 국민의 사회생활에 기준이 되는 「상용한자표(1981년)», 「현대 가나 표기법(1986년)», 「외래어 표기(1991년) 등의 답신을 내어, 이것이 내각 고시·내각 훈령으로서 국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과제로 되어 있는 경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 사용 문제와 워드 프로세서 등의 보급에 따른 상용 한자 이외의 한자의 글꼴 문제, 국제화 시대의 일본어의 위상과 외래어·외국어 증가 문제, 일본인의 이름의 로마자 표기 문제에 대해서 2000년 12월에 「현대 사회에서의 경어 표현」, 「상용 한자 외 한자의 자체 표」 및 「국제 사회에 대응하는 일본어의 위상」을 답신하여 이것이 국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한편, 국어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기관인 문화청 문화부 국어과에서는 매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2000년도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주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언어 사용)”에는 언어의 혼란과 사용법, 속담과 외래어 인식에 관한 내용, 로마자 표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국어에 관한 조사 당시의 의식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조사 내용의 일부를 '5. 일반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도'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 국책 연구 기관의 노력

일본의 국어 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국책 연구 기관으로는 1948년에 설치된 국립국어연구소를 들 수 있는데, 주로 일본어와 일본인의 언어 생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일본어와 외국어의 대조 연구,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육에 관한 조사와 연구 및 일본어 교사의 연수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단행본, 사전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간행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립국어연구소가 일반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① 국어 포럼

국어 포럼은 일반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말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매년 수 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2002년 3월 24일에 열린 포럼의 주제는 「입말의 풍요로움, 재발견」이었는데, 방언, 공통어(표준어), 경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는 고향의 입말의 다채로운 쓰임새를 참가자와 같이 탐험하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말의 역할을 재발견하며, 풍요로운 언어 생활을 영위하고, 여러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입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언어 교육에 대해서 참가자와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② 국어에 관한 전화 질문에 대한 대답

일반 국민의 전화를 이용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2000년도의 질문 수는 1,050건이었다고 한다.

③ 계몽 도서 및 비디오 등의 제작 보급

일반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새말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이 시리즈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인 문화청에서 해 오던 『말 시리즈』(1~41), 『새말 시리즈』(1~10) 발간 및 보급 사업을 국립국어연구소가 이어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일반 국민의 국어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특집으로 꾸며 일반 국민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청과 국립국어연구소에서 발간한 『말 시리즈』, 『새말 시리즈』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말 시리즈 (1) 경어』 (문화청 편, 1974)

『말 시리즈 (6) 표준어와 방언』 (문화청 편, 1977)

『말 시리즈 (8) 고유 일본어와 한자어』 (문화청 편, 1978)

『말 시리즈 (10) 일본어의 특색』 (문화청 편, 1979)

『말 시리즈 (12) 입말』 (문화청 편, 1980)

『말 시리즈 (14) 인사와 말』 (문화청 편, 1981)

『말 시리즈 (16) 한자』 (문화청 편, 1982)

『말 시리즈 (18) 말과 음성』 (문화청 편, 1983)

『말 시리즈 (20) 문장 쓰는 법』 (문화청 편, 1984)

『말 시리즈 (22) 말하는 법』 (문화청 편, 1985)

『말 시리즈 (26) 일본어와 외국인』 (문화청 편, 1987)

『말 시리즈 (38) 말과 환경』 (문화청 편, 1993)

『새말 시리즈 (1) 국제화와 일본어』 (문화청 편, 1995)

『새말 시리즈 (3) 일본어 교육』 (문화청 편, 1996)

『새말 시리즈 (9) 정보화 시대의 언어 능력』 (문화청 편, 1999)

『새말 시리즈 (11) 풍요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 (국립국어연구소 편, 2000)

『새말 시리즈 (13) 말을 조사한다, 생각한다』 (국립국어연구소 편, 2001)

한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2002년도부터 각급 학교(초중고) 교육에서 실시되는 새 교육 과정의 「종합적 학습 시간」에서의 다양한 학습과 지도 중에서, 특히 말(국어)을 주제로 한 학습 활동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실천 사례와 대상이 되는 소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말 탐험·말 발견』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이 비디오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말’을 주제로 한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체적인 영상과 음성으로 예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말에 의문과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거나 그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해 가는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여 단계별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말에 대한 학습 소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언어 장면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는 위한 것인데, 이 비디오는 교사가 말을 주제로 한 종합적 학습 시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시청하여 지도 계획을 세우기 위한 참고로 활용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 학생과 교사가 같이 시청하여 말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발표하거나 하는 학습 활동의 실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디오에는 해설서를 첨부하여 내용 설명, 소재와 관련된 용어, 속담 등의 해설, 취재와 발표 등과 같은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어 사용 방법 등의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수록하고, 비디오를 이용한 실천 사례와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비디오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위원회와 시청각 센터 등에 보급하여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요구하는 국어 능력

일본의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은 크게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과 대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구분된다. 대졸 정도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는 국가 공무

원 채용 I종 시험, 국가 공무원 채용 II종 시험, 국세 전문관 채용 시험, 노동 기준 감독관 채용 시험, 법무 교관 채용 시험, 항공 관제관 채용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의 공통 과목인 교양 시험(55문제)에 문장의 이해 정도를 묻는 문제(8문제)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고, 논문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에 종사할 자로서 필요한 문장에 의한 표현력과 과제에 관한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짧은 논문 작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고졸 정도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는 국가 공무원 채용 III종 시험, 항공 호위관 채용 시험, 형무관 채용 시험, 입국 경비관 채용 시험이 있는데, 이들 시험에서는 공통 교양 시험의 일반적인 지식을 묻는 과목에 국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작문 시험에서는 특히 행정 사무와 우편 사무 및 세무직 응시자를 대상으로 문장에 의한 표현력과 과제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앞에서 소개한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과는 별도로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는데, 사이타마 현(埼玉縣)에서는 대졸 정도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시험에서는 교양 시험에서 문장 이해력을 묻고 있고, 고졸 정도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모든 직종에 국어와 문장 이해력을 묻는 문제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후쿠오카 시의 경우를 보면, 대졸 정도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시험의 제2차 시험에서 논문을 부과하여 표현력과 문장 구성력 및 지식 등을 측정하고 있다.

한편, 사이타마 현을 비롯한 각 지방 자치 단체 중에는 공무원 연수로서 국어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국어 교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 지도 요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학습 지도 요령」은 1951년, 1961년, 1972년, 1979년, 1989년, 2000년에 각각 고시되었는데, 가장 최근에 고시된 2000년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달리 국어 능력을 「말

하기·듣기, 「쓰기, 「읽기」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새 「학습 지도 요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2년 4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고등학교는 2003년부터 학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이하에서는 각급 학교의 국어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4.1. 초등학교의 국어 교육

새 「학습 지도 요령」에 명기된 초등학교의 국어 교육 목표는 “국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며, 의사 소통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 및 언어 감각을 배양하여 국어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각 학년별로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초등학교의 각 교과별 수업 시수를 <표 1>에 나타낸다. 국어의 수업 시수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으나, 그 대신 사회 과목과 가정 과목의 수업 시수가 고학년에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새 교육 과정의 특징으로서 새로 설정된 「종합적 학습 시간」을 들 수 있는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당되어 있다.

<표 1> 초등학교 교과목 수업 시수(1단위 시간은 45분)

구분	각 교과									도 덕	특별 활동	종합적 학습 시간	총 수업 시수
	국 어	사 회	산 수	이 과	생 활	음 악	미 술 공 작	가 정	체 육				
1학년	272	/	114	/	102	68	68	/	90	34	34	/	782
2학년	280	/	155	/	105	70	70	/	90	35	35	/	840
3학년	235	70	150	70	/	60	60	/	90	35	35	105	910
4학년	235	85	150	90	/	60	60	/	90	35	35	105	945
5학년	180	90	150	95	/	50	50	60	90	35	35	110	945
6학년	175	100	150	95	/	50	50	55	90	35	35	110	945

4.2. 중학교의 국어 교육

중학교의 국어 교육 목표는 “국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고, 의사 소통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을 배양하고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며, 국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설정되어 있고,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학년별 목표 및 내용이 정해져 있다.

<표 2> 중학교 교과목 수업 시수(1단위 시간은 50분)

구분	필수 교과									도 덕	특별 활동	선택 교과	종합적 학습 시간	총 수업 시수
	국 어	사 회	수 학	이 과	음 악	미 술	보 건 체 육	기 술 가 정	외 국 어					
1학년	140	105	105	105	45	45	90	70	105	35	35	0~30	70~100	980
2학년	105	105	105	105	35	35	90	70	105	35	35	50~85	70~105	980
3학년	105	85	105	80	35	35	90	35	105	35	35	105~165	70~130	980

4.3. 고등학교의 국어 교육

고등학교의 국어 교육 목표는 “국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적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을 길러 심정을 풍부하게 하고, 언어 감각을 연마하여 언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깊게 하고 국어를 존중하여 그 향상을 도모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설정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각 과목별로 교육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2000년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지금까지 종합적 성격을 띤 과목인 「현대 국어」, 「국어 종합」, 「국어 I」이 고등학교 국어과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는데, 새 교육 과정(표 3)이 등장하면서 「국어 표현 I」, 「국어

표현Ⅱ」가 중시되게 되었다. 「국어 표현」은 1979년에 고시된 「학습 지도 요령」에서 국어과의 선택 과목의 하나로 등장했는데, 「국어 표현」, 「현대문」, 「고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국어 표현」을 선택하는 학교는 매우 적었다고 한다(가이 2001).

2000년에 고시된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국어 표현Ⅰ」(2단위)과 「국어 종합」(4단위)이 선택 필수 과목으로 설정되고, 「국어 표현Ⅱ」(2단위), 「현대문」(4단위), 「고전」(4단위), 「고전 강독」(2단위)이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었다.

<표 3> 고등학교 교과목의 표준 단위 수(1단위 시간은 50분)

교과	과목	표준 단위수	교과	과목	표준 단위수
국어	국어표현	2	수학	수학기초	2
	국어표현	2		수학Ⅰ	3
	국어종합	4		수학Ⅱ	4
	현대문	4		수학Ⅲ	3
	고전	4		수학A	2
	고전강독	2		수학B	2
				수학C	2
지리역사	세계사A	2	이과	이과기초	2
	세계사B	4		이과종합A	2
	일본사A	2		이과종합B	2
	일본사B	4		물리Ⅰ	3
	지리A	2		물리Ⅱ	3
	지리B	4		화학Ⅰ	3
				화학Ⅱ	3
				생물Ⅰ	3
		생물Ⅱ	3		
		지학Ⅰ	3		
		지학Ⅱ	3		

교과	과목	표준 단위수	교과	과목	표준 단위수
공민	현대사회	2	보건체육	체육	7~8
	윤리	2		보건	2
	정치·경제	2			
예술	음악Ⅰ	2	외국어	오컬	2
	음악Ⅱ	2		커뮤니케이션Ⅰ	4
	음악Ⅲ	2		오컬	4
	미술Ⅰ	2		커뮤니케이션Ⅱ	3
	미술Ⅱ	2		영어Ⅰ	4
	미술Ⅲ	2		영어Ⅱ	4
	공예Ⅰ	2		강독	4
	공예Ⅱ	2		작문	4
	공예Ⅲ	2			
	서도Ⅰ	2			
	서도Ⅱ	2			
	서도Ⅲ	2			
가정	가정기초	2	정보	정보A	2
	가정종합	4		정보B	2
	생활기술	4		정보C	2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각 교과 및 특별 활동의 두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02년부터 시행되는 교육 과정에서는 각 교과 및 특별 활동에 「종합적 학습 시간」이 추가되어 세 영역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종합적 학습 시간」을 설정하여 지역과 학교, 학생의 실태에 따라서 횡단적·종합적인 학습과 학생의 흥미·관심을 토대로 한 학습 등 창의성을 살린 교육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 시간에는 학생이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며, 배우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을 익혀서 문제 해결과 탐구 활동을

에 주체적, 창조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길러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는 국제 이해, 정보, 환경, 복지·건강 등의 횡단적·종합적인 과제에 대한 학습 활동, 학생이 흥미·관심, 진로 등에 대해서 설정한 과제에 대해서, 지식과 기능의 심화, 종합화를 도모하는 학습 활동,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 및 진로에 대해서 고찰하는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 학습 시간」과 국어 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에서 소개한 국립국어연구소가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국어 관련 비디오도 그 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4.4. 초등학교·중학교 타 교과 담당 교사의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어과 이외의 교과목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자의 학습 지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국립국어연구소 1994)를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초등학교 교사에게 국어 이외의 교과목의 수업에서 한자 지도를 할 때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4.6%의 교사들이 지도한다고 대답했고, 한자 지도를 많이 하는 과목은 사회(92.5%), 산수(49.9%), 이과(43.6%), 도덕(21.0%), 특별 활동(9.4%), 가정(4.8%), 음악(3.6%), 미술 공작(2.4%), 체육(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한자를 지도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자 지도 내용은 한자 읽기만 지도한다고 49.4%로 가장 높았고, 쓰기도 지도하지만 읽기를 더 많이 지도한다고 34.2%, 읽기와 쓰기를 같은 정도로 지도한다고 11.9%로 나타났다.

다음에,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과목에 따라서 한자를 교육한다고 대답한 교사의 비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순서는 사회(93.9%), 가정(82.6%), 이과(81.9%), 기술(68.0%), 음악(60.1%), 미술(58.8%), 건강체육(57.3%), 수학(55.2%), 영어(46.5%)로 나타났다. 한편, 타 교과의 교사들이 국어 과목에서 한자의 읽기 및 쓰기 지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비

율이 대부분의 과목에서 50%를 넘었으며, 한자의 읽기와 쓰기를 같이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어 이외의 과목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에 대해서는 국어 시간에 가르치기보다 해당 교과에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평균 78.6%로 나타나, 한자 교육에 대한 타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5. 일반 국민의 자국어에 관한 관심도

일본 국민의 자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는 일본 문부 과학성 산하의 문화청 문화부 국어과가 실시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최근의 조사는 ‘현대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일본인의 국어 의식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여 국어 정책의 입안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1월에 전국 16세 이상의 남녀 개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청취 방법을 이용해서 실시되었으며, 1)언어 사용의 혼란에 관한 내용, 2)속담, 외래어의 인식에 관한 내용, 3)로마자 표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는 “2000년도 국어에 관한 여론 조사: 가정과 직장에서의 언어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일반 국민의 국어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인 말씨와 말하기, 쓰기 등 국어에 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를 질문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표 4> 일본 국민의 자국어에 대한 관심도

(단위: %)

	1992년도	2000년도
매우 관심 있음	19.1	15.3
어느 정도 관심 있음	53.8	57.8
그다지 관심 없음	23.2	22.7
전혀 관심 없음	2.8	3.5
모름	1.1	0.6

<표 4>에서 먼저 2000년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관심이 있음>의 비율은 15.3%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10%대에 머물러 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의 비율은 57.8%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둘을 합한 <관심이 있다>의 비율(합계)은 73.2%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한편, <그다지 관심이 없다>의 비율은 22.7%, <전혀 관심이 없다>의 비율은 3.5%로, 이 둘을 합한 <관심이 없다>의 비율(합계)은 26.2%로, 전체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 이 결과를 1992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관심이 있다>의 비율은 1992년도에 비해서 약 4% 정도 감소했지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음>의 비율이 1992년도에 비해서 4% 증가하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의 비율(합계)에서는 1992년도 조사 결과와 2000년도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관심도를 살펴보면, 남녀 사이에 현저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매우 관심이 있다>는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둘을 합한 <관심이 있다>의 비율(합계)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매우 관심이 있다>의 비율은 60세 이상의 남성에서 20%를 넘어서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심이 있다>의 비율은 30대~50대의 여성에서 80%로 높다. <관심이 없다>의 비율은 16세~19세 여성의 약 50%, 16세~19세 남성의 40% 정도로 나타나, 젊은 층의 자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조사에서 <매우 관심이 있다>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자국어의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를 <표 5>에 나타낸다.

<표 5> 일본인이 자국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내용 (단위: %)

관심내용	1992년도	2000년도
일상적인 말씨와 말하기	77.4	75.5
경어 사용법	58.5	56.5
말의 의미·유래와 국어의 역사	25.2	23.5
문자와 표기 방법 또는 문장 쓰는 법	27.9	23.4
발음과 악센트	15.6	19.5
신어(新語)·유행어	17.4	18.1
컴퓨터·워드 프로세서 등의 정보 기기가 국어에 미치는 영향※	8.3	15.1
공통어(표준어)와 방언	7.9	11.2
외래어·외국어의 사용법	10.7	10.9
국어 교육과 국어에 관한 시책	10.0	8.3
국제화가 국어에 미치는 영향	5.9	5.4
기타	0.1	0.0
모름	1.0	0.4

※ ‘컴퓨터’는 2000년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된 것임.

<표 5>에 따르면, 2000년도의 조사 결과에서는 <일상적인 말씨와 말하기>의 비율이 70%를 넘은 데 이어서 <경어의 사용법>이 56.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를 1992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상위 항목은 순위와 비율 모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7위였던 <정보 기기가 국어에 미치는 영향> 항목은 그 비율이 7% 증가하였다.

한편, 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의식을 조사한 시마무라(1993)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1,412명을 대상으로 문장을 쓸 때와 말할 때 느끼는 곤란을 질문

한 결과, 문장을 쓸 때 곤란을 느낀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약 53%로 나타났다. 특히,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과 쓸 내용, 설명 방법, 어구의 사용에 고생한다고 대답하였다. 즉, 한자, 구독점 등과 같은 문자·표기에 관한 것보다 내용적인 면에서 고생하는 학생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말을 할 때의 문제점(①남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 ②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③경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④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①에 대해서는 30%의 학생이, ②에 대해서는 31% 정도의 학생이, ③에 대해서는 18%의 학생이, ④에 대해서는 6% 정도의 학생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즉, 일본의 대학생은 말하기 보다 문장을 쓰는 데 곤란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고, 말할 때는 「경어」나 「표준어」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남의 앞에서」, 「표현력」 등과 같은 말하기 전체에 관련된 것에 곤란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는, 「기업 경영자는 종업원의 말하는 능력에는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서 쓰는 능력에는 만족도가 낮다」는 경제동우회 교육문제위원회(1980)의 보고와 일치한다.

6. 국어 관련 각종 시험 및 경시 대회

① 일본어 문장 능력 검정

일본어 문장 능력 검정은 내용 파악 능력(문장을 읽고, 그 요지와 중심 부분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지적하거나 정확하게 써서 나타내는 능력)·구성 능력(어떤 것을 어떤 순서로 쓰나를 판단하는 능력)·표현 능력(간결하고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작성 능력(사회생활이나 사회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장 작성 능력)의 4가지 능력을 어떤 수준에서 갖추고 있나를 정하는 검정 시험으로, 일본어 문장 능력 검정 협회에서 주관한다. 이 시험에서 취득한 자격은 취직과 진학에 유리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6> 일본어 문장 능력 검정 시험의 등급별 내용

등급	수 준
7급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재학 정도
6급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재학 정도
5급	초등학교 고학년~중학교 재학 정도
4급	중학교 졸업 정도
3급	고등학교 재학 정도
준2급	고등학교 졸업 정도
2급	사회인 정도

이 시험의 주관 단체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응시자의 체험담에 따르면, 노무라 증권 주식회사 투자정보부의 부장이 먼저 응시한 후, 그 유용성을 인정하여 투자정보부의 지정 시험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② 일본 한자 능력 검정

일본 한자 능력 검정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인정받은 기능 검정으로, 1992년 6월에 처음 실시된 이래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연간 약 157만 명이 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 검정 시험은 연 3회 실시되며, 1급에서부터 8급까지로 되어 있고, 1급은 다시 1급과 준1급, 2급은 2급과 준2급으로 나누어져 모두 10단계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일본 한자 능력 검정의 등급별 내용

등급	수 준
8급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습 한자(440자)를 이해하고, 단문과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7급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학습 한자(640자)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	수 준
6급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학습 한자(825자)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의 한자의 역할을 알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급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학습 한자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의 한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깊게 하고, 한자를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급	초등학교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모든 한자(1006자)와 기타 상용 한자 300자 정도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급	초등학교 학년별 한자 배당표의 모든 한자(1006자)와 기타 상용 한자 600자 정도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준2급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학습하는 상용 한자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상용 한자를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명용 한자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준1급	상용 한자를 중심으로, 약 3000자의 한자(일본 공업 규격 제1수준을 기준으로 함)의 음과 훈을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급	상용 한자를 포함하여, 약 6000자의 한자(일본 공업 규격 제2수준을 기준으로 함)의 음과 훈을 이해하고,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험자의 연령층은 6세부터 94세까지 그 폭이 매우 넓으며,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험자의 연령층이 다양해졌다. 기업체 중에는 한자 능력 검정 합격을 위한 특별 강좌를 마련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또한, 대학과 단기대학(전문대학)에서 한자 능력 검정 합격자를 입시에서 우대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하는 곳이 증가하면서 한자 능력 검정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③ 일본어력 측정 시험

일본인의 일본어 지식과 운용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1998년 10월에 시작된 시험이다. 앞에서 소개한 시험이 일본어의 부분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서, 이 시험은 일본어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을 육성할 목적으로 「일본어학 연구소」라는 민간 기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다. 시험은 각각 청취 문제(70개)와 독해 문제(130개)로 구성된 4지 선택 형식의 시험인데, 응시자에게는 총점 외에 문자와 어구의 사용법, 관용적 용법, 경의 표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 별로 정답률을 표시한 평가 차트와 함께 인증서가 주어진다.

<표 8> 일본어력 측정 시험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 용	사회적 입장(예)
특1급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 운용 능력을 가지며, 일본인의 언어생활 향상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언론인, 일본어 교사 등 언어의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의 사람 · 1급 중에서 특히 언어 운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
1급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언어 운용 능력을 가지며, 각각 다른 입장의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정확한 지시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의사, 변호사, 고급 공무원, 기업 고급 관리직, 홍보 담당자, 언론인, 아나운서, 카피라이터(광고문안가), 출판편집자, 수필가, 작가, 각본가, 번역가, 통역, 국어 교사, 고급 시스템 엔지니어, 경영 컨설턴트 등.
2급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언어 운용 능력을 가지며, 상대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기분 좋게 전달할 수 있으며, 풍부한 인간 관계를 쌓을 수 있다.	중급 관리직, 영업 리더, 시스템 엔지니어, 시청 등의 창구 담당자, 세무서 창구 담당자, 간호사, 경찰관, 교환원, 회사 접수 담당자 등 ※대학 졸업 수준 (전문대학 포함)

등급	내 용	사회적 입장(예)
3급	사안을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언어 운용 능력을 가지며,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의견을 바르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정도
4급	초대면한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운용 능력을 가지며, 상대의 생각을 올바르게 적절하게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 정도
5급	가정을 중심으로 친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운용 능력을 가지며, 상대의 말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다.	※초등학교 졸업 정도

7. 매스컴의 국어에 대한 관심

언론사와 각종 사회 단체가 주관하는 국어 관련 경시 대회 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① 청소년 독서 감상문 전국 콩쿠르

이 대회는 마이니치 신문사가 전국 학교 도서관 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주최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만 20세까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데, 초등학생은 학년에 따라서 다시 저학년(1, 2학년), 중학년(3, 4학년), 고학년(5, 6학년)으로 나눈다. 독서 대상 도서는 자유 독서와 과제 독서로 나누어지는데, 자유 독서는 다시 픽션(동화, 희곡, 소설)과 논픽션(전기, 철학, 역사, 생활 기록, 과학 등)으로 나누어지고, 과제 독서에서는 대상 도서를 학년별로 3개씩 지정한 다음, 원고지에 감상문을 쓰게 한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800자 이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1200자 이내로 제한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00자 이내로 감상문을 쓰게 된다.

② 돈에 관한 작문 콩쿠르

이 대회는 마이니치 신문사와 금융 홍보 중앙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 작문 콩쿠르로, '돈과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하기'를 주제로 400자 원고지 1장~3장 정도의 분량의 내용을 자유롭게 쓰게 한다.

③ 인터넷을 이용한 고등학생 소논문 콘테스트

청소년의 창조력과 표현력의 육성을 꾀하고, 청소년에게 글을 쓰는 동기 부여와 즐거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IT혁명에 따른 학교에서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니치 신문사가 개최하는 행사이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소논문을 1,000자 이내로 쓰게 된다.

④ 수학 여행 작문 콩쿠르

수학여행으로 일본의 유적 도시인 교토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교토에 대한 인상을 신선한 눈과 풍부한 감성으로 표현하게 하여, 어린이가 정보 교육에도 친숙해지게 하고, 학교 간의 새로운 교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토시와 교토시 관광협회, 교토 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손으로 쓴 작문과 그림과 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작문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사회 단체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이 주최하는 작문 콩쿠르 등이 무수하게 많이 실시되고 있다.

⑤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국어 교육

공영 방송인 NHK 라디오 제2방송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NHK 아나운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를 편성하여 주 1회 15분씩 방송(재방송 2회)하고 있는데, 매월 주제를 정하여 일본인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2년 4월의 주제는 「신(新)사회인의 말 I」로,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의 사회생활 시작에 맞추어, 「인사」, 「자기소개」, 「탈(脫)젊은이의 말」로 꾸며졌고, 5월의 주제는 「신(新)사회인의 말 II」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답게」, 「또렷하게 발음한다」, 「말하기의 기본」, 「풍성한 마음 좋은 회화」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6월에는 「비즈니스 회화」를 주제로 「보고는 알기 쉽게」, 「프레젠테이션」, 「효과적으로 말하는 법」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NHK 방송 문화 연구소에서는 일본어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과 관련된 국어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 Q&A」에서는 일본어 표기, 어법, 한자음 등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말의 결과 속」에서는 발음의 변화, 말의 혼란 등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NHK는 1943년에 『NHK 일본어 발음 악센트 사전』을 편찬하여 일본 국민의 언어 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는데, 금년 3월에 1998년의 신판에 수록된 표제어 69,000단어의 음성을 NHK 아나운서의 발음으로 수록한 『CD-ROM NHK 일본어 악센트 발음 사전』(NHK출판)을 펴냈다. 특히, 이 사전은 수록 어휘의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고, 「학습편」에서는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여 아나운서의 발음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첨부되어 일반 국민의 국어 생활 향상과 국어 교육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각종 사회 단체 및 언론사 등이 자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소개했다. 우리 민족의 고유 언어인 한국어의 발전을 이루고 한국어를 국어로 또는 외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가이(甲斐睦朗 2001). 「国語教育の20年」. 『日本語学』 第20卷12号. 34-41.
- 經濟同友会教育問題委員会(1980). 『国語教育の新たな展開を求めて; アンケート調査 結果報告書』((시마무라 1993)에서 재인용).
- 고모리(小森茂 2001). 「学習指導要領・国語の20年」. 『日本語学』 第20卷12号. 42-50.
- 国立国語研究所(1994). 『国立国語研究所報告 106 常用漢字の習得と指導』. 東京書籍株式会社.
- 文化庁文化部国語課(2001). 『平成12年度 国語に関する世論調査; 家庭や職場での言葉遣い』. 財務省印刷局.
- 스기토(杉戸清樹 2001). 「国立国語研究所ことばビデオ 『ことば探検・ことば発見』」. 『日本語学』 第20卷 第11号. 80-88.
- 시마무라(島村直己 1993). 「大学生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意識」. 『計量国語学』 第18卷 第8号. 369-381.
- 아사마쓰(浅松絢子 2001). 「国語審議会の最後の20年」. 『日本語学』 第20卷 第11号. 72-80.
- NHK방송문화연구소편(2002). 『CD-ROM NHK日本語発音アクセント辞典』. NHK出版.